

Korean Guidelines for Colorectal Cancer Screening and Polyp Detection

대장암 선별과 대장폴립 진단검사 가이드라인

Bo In Lee, MD¹, Sung Pil Hong, MD², Seong-Eun Kim, MD³, Se Hyung Kim, MD⁴, Hyun-Soo Kim, MD⁵, Sung Noh Hong, MD⁶, Dong-Hoon Yang, MD⁷, Sung Jae Shin, MD⁸, Suck-Ho Lee, MD⁹, Young-Ho Kim, MD¹⁰, Dong Il Park, MD¹⁰, Hyun Jung Kim¹¹, Suk-Kyun Yang, MD⁷, Hyo Jong Kim, MD¹², Hae Jeong Jeon, MD¹³, Multi-Society Task Force for Development of Guidelines for Colorectal Polyp Screening, Surveillance and Management

¹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²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³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⁴Department of Rad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⁵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Wonju, Korea

⁶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onku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⁷Department of Gastroenterology,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⁸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uwon, Korea

⁹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eonan, Korea

¹⁰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¹¹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¹²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¹³Department of Radiology, Konku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Colorectal cancer is currently the second most common cancer among Korean males and the fourth most common among females. Since the majority of colorectal cancer case present following the prolonged transformation of adenomas into carcinomas, early detection and removal of colorectal adenomas are vital methods in its prevention. Considering the increasing incidence of colorectal cancer and polyps in Korea, it i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national guidelines for colorectal cancer screening and polyp detection. The proposed guidelines have been developed by the Korean Multi-Society Task Force using evidence-based methods.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have been used to form the statements contained in the guidelines. This paper discusses the epidemiology of colorectal cancers and adenomas in Korea as well as optimal methods for screening of colorectal cancer and detection of adenomas including fecal occult blood tests, radiologic tests, and endoscopic examinations.

Index terms

Early Detection of Cancer

Colorectal Neoplasms

Occult Blood

Colonoscopy

Colonography

Computed Tomographic

Received December 17, 2011;

Accepted January 29, 2012

Corresponding author: Hyun-Soo Kim, MD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162 Ilisan-dong,

Wonju 220-701, Korea.

Tel. 82-33-741-1229 Fax. 82-33-741-1228

E-mail: hyskim@yonsei.ac.kr

This study was initiated with the support of the Korean Society of Gastroenterology, the Kor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and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Intestinal Disease.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Korean Health Technology R&D Project, Ministry for Health, Welfare & Family Affairs, Republic of Korea (A102065-23).

We extend profound thanks to Professor Hwang Choi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Professor Sung-Ae Jung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nd Professor Seon-Ja Park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who gave un-sparing advice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this guideline for colorectal cancer screening and polyp detection. We express our deep appreciation to Professor So Yeon Kim (Department of Radiology,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for her great devotion to the completion of this guideline.

We also give great thanks to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l Medicine and Korean Physicians Association for their agreement with final version of this guideline. This study was initiated with the support of the Korean Society of Gastroenterology, the Kor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and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Intestinal Disease.

Copyrights © 2012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서론

보건복지가족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에서 대장암의 발생률

은 2008년 인구 10만 명당 남자에서 54.7명, 여자에서 36.9명으로, 대장암은 남녀에서 각각 두 번째와 네 번째로 호발하는 암이 되었다(1). 2008년 암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

%)에서도 대장암에 의한 암사망률이 남자 15.4%, 여자 12.1%로 남녀 각각 네 번째와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특히 2000년 이후 국내 다른 주요 호발암종인 폐암, 간암, 위암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과 달리 대장암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대장암의 발생률 증가는 무엇보다 식생활의 서구화가 원인이겠지만, 이와 더불어 2004년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대장암 검진이 추가되면서 국민의 관심과 대장암 검진 참여율 증가에 따른 결과로도 추정된다. 실제 대장암 국가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참여율은 2004년 10% 전후에서 2008년에는 20%를 넘어 2009년에는 25.9%로 대장암의 국가암검진건수가 110만 건을 초과하였다(2).

대장암의 대부분은 장기간의 샘종-암화 과정을 거쳐 발생하게 되므로 2차 예방, 즉 선별검사를 통한 대장샘종의 적절한 발견과 제거가 최선의 대장암 예방법이 된다. 특히 진행샘종(advanced adenoma)은 대장암의 명확한 전구병변이자 대리표지자(surrogate marker)로 2차 예방의 목표병변이며 선별대장내시경검사는 이러한 진행샘종을 발견하여 제거함으로써 대장암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3). 대장암 검진의 보편화와 치료법의 발전으로 국내 대장암 생존율이 2000년 이전 50% 전후에서 2001~2005년 66.3%, 2004~2008년 70.1%로 향상되었는데 이는 무증상 평균위험군에서 대장암 선별검사를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외국의 연구결과들(4-6)과 일치한다. 따라서 대장암과 대장폴립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사정에 맞는 대장암 선별과 대장폴립 진단검사의 확립이 중요하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대장암의 선별검사와 샘종-암화의 연속적인 이행과정을 고려하여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진행샘종의 진단검사를 묶어 다루고자 하였다. 따라서 주로 대규모 인구집단에서 대장암의 선별에 유용한 대변잠혈검사와 대장암의 예방을 목표로 대장점막의 구조적 변화를 폴립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시경검사 및 영상학적 검사를 위주로 대장암 선별과 대장폴립 진단검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대장암의 발생 위험성이 높은 과거력이나 가족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없는 무증상 평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서구의 대장암 선별검사 가이드라인과 국내외 문헌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일부 주제에 대한 메타분석을 시행하여 대장암 선별과 대장폴립 진단검사 시행 시기, 방법, 검사법에 따른 이득과 제한점을 제안함으로써 대장암 선별과 대장폴립의 진단검사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대장암이

나 대장폴립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절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다기관연구를 통한 역학자료는 있지만 선별검사와 관련된 대규모 연구가 불충분하여 이를 극복하고 국내 의료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와 대장암 검진을 담당하는 내시경 의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동의수준을 제시하였다.

대장암 선별과 대장폴립 진단검사 가이드라인의 한계

대장암 선별과 대장폴립 진단검사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국내 문헌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의 근거 문헌들은 대부분 서구의 가이드라인과 체계적 총설(systemic review)을 기반으로 하였다. 또한 2006년 이후의 주요 연구결과를 고찰하였지만 대장암의 위험도, 환자의 인구학적 차이, 선별검사의 질과 양적 차이, 그리고 표준화된 검사방법의 부재 등 유사 연구 간에도 매우 이질적인 요소들이 있어 Grading of Recommendations Assessment, Development and Evaluation (이하 GRADE) 평가법에 따른 근거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서구와 다른 국내의 대장폴립 진료형태와 의료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웹기반의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델파이 방법을 이용하여 가능한 많은 국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통일된 동의수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장폴립 임상진료 가이드라인의 개발과정

2010년 5월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장연구학회의 세 소화기 연관학회가 중심이 되어 각 학회를 대표하는 위원 3명씩 총 9명의 실무위원과 2명의 자문위원으로 대장폴립 진료 가이드라인 개발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자문위원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장연구학회를 대표한 김효종(경희의대) 교수와 대한소화기학회를 대표한 양석균(울산의대) 교수였다. 2010년 6월 1차 모임을 통해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김현수(원주의대), 간사 양동훈(울산의대)을 비롯하여 대장폴립 선별검사팀(김현수 팀장 외 가톨릭의대 이보인, 이화의대 김성은, 연세의대 홍성필), 추적검사팀(성균관대의대 김영호 팀장 외 건국대의대 홍성노, 울산의대 양동훈), 치료팀(성균관대의대 박동일 팀장 외 순천향의대 이석호, 아주의대 신성제)으로 구성되었다. 2010년 6월과 7월에 걸쳐 1~2차 워크숍을 통하여 이론 측면에서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 자문위원장인 안형식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의 지도로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방법론을 익혔으며 실제 측면에서는 간암, 유방암, 염증성 장질환의 가이드라인 개발을 주도한 박중원(국립암센터 소화기내과), 이은숙(국립암센터 외과), 예병덕(울산의대 소화기내과) 교수

로부터 개발 과정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후 대장폴립 진료 가이드라인의 개발 방법과 범위, 개발일정,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선별검사 가이드라인은 근거에 기반하는 외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수용 개정을 원칙으로 하되 최신 자료를 이용한 부분적인 메타분석을 시도하기로 하였고, 추적검사 및 내시경 치료의 가이드라인은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기초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개발하기로 하였다. 2010년 9월 이후에는 가이드라인 작성 방법론, 체계적인 문헌고찰, 메타분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하기 위해 고려의대 근거중심의학연구소 김현정 연구교수의 자문을 단계별로 받았다. 각 실무팀별로 핵심 질문을 선정하였고 가능한 PICO (Patient,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 형태에 기초하여 문헌을 검색하고 근거표를 작성하였다. 선별검사팀은 영어, 미국-유럽 중심, 근거표를 포함하는 문헌을 우선 순위로 수용 개정 대상인 임상진료지침이나 권고안 문헌을 선정하였으며 수용 개정 대상이 되는 권고안을 10개 선정하여 Appraisal of Guidelines for Research & Evaluation II 도구로 평가하였다. 2010년 12월에는 선별검사실에서 다룰 CT 대장조영술과 이중조영바륨관장술에 대한 전문가로 대한복부영상의학회를 대표하여 김세형(서울의대 영상의학과) 교수가 팀원으로, 전해정(건국의대 영상의학과)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합류하였다. 선별 및 추적검사, 내시경 치료에 관련된 국내의 대장폴립 진료행태를 파악하고 향후 가이드라인 제작 보급 후 가이드라인에 대한 순응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2011년 1월과 2월 에 걸쳐 대한장연구학회 회원 2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4월 대한장연구학회 춘계 학회에서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2011년 4월 대한소화기연관학회 연수강좌에서는 외국의 대장폴립 진료 가이드라인과 근거를 제시하였을 때 가이드라인 교육과 보급을 통한 개선 정도를 알기 위해 키패드 보팅을 시행하였다. 2011년 7월 완성된 핵심문구 초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초안을 완성하였으며 45명의 전문가가 모여 델파이 방법을 이용한 전문가 간 동의수준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외부 전문가로는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장연구학회 세 학회의 평의원과 현직 학회 위원 등을 중심으로 하였고, 영상의학 분야의 자문을 위하여 대한복부영상의학회 임원 11명을 포함하였다. 각 핵심문구에 대해서는 다섯 단계의 리커트 척도에 따라 전적으로 동의함, 대체적으로 동의함, 일부 동의함을 포함하여 50% 이상이 찬성인 경우 가이드라인 핵심문구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작성된 가이드라인 초안은 2011년 8월 공청회를 통하여 가이드라인 개발에 참여한 다 학회 및 대장폴립 진료와 관련된 학회로부터 공식적인 이견을 접수 받았으며 핵심문구의 근거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

나에서 발표하였다. 이후 공청회에 참여한 각 학회 및 단체의 동의를 거친 최종안은 2011년 11월 추계 대한소화기연관학회에서 공표되었다. 진료 가이드라인 개발과정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 간에 이해관계의 상충은 없었다.

가이드라인의 배포와 실행 활동

개발된 가이드라인은 대한소화기학회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대한장연구학회지, 대한영상의학학회지에 공동 게재될 예정이다. 해당 학회의 홈페이지와 의학관련 주요 신문을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요약본 안내책자와 홍보용 슬라이드를 제작하여 수련병원에 내용을 널리 알리고 보급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실행여부의 되먹임 과정과 개정

가이드라인의 배포와 실행 활동 후에는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대한 순응도를 평가하여 실제 진료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이후에 대장폴립 관련 주요한 진료환경이나 최신 연구결과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내용을 개정할 예정이다.

본론

방법

핵심질문(Key Question)의 선정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국내 가이드라인 제정의 배경 및 당위성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의 대장암 및 대장폴립의 역학과 위험인자에 대한 핵심질문을 선정하였다. 또한 대변잠혈검사, CT 대장조영술, 이중조영바륨관장술 및 대장내시경검사가 대장암 선별 및 대장샘종의 진단검사법으로서 적합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핵심질문을 선정하였다. 대장암 및 대장폴립의 위험인자에 관한 내용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문헌검색

선별검사의 문헌검색은 두 개의 검색 데이터베이스[Medline_Pubmed와 National Guideline Clearinghouse (NGC)]와 한 개의 이차문헌 검색엔진(Trip)을 이용하였다. NGC는 지침만을 모아둔 데이터베이스이므로 colorectal cancer, screening, di-agnosis 세 가지 주요 개념을 교집합으로 검색하여 미국, 유럽연합의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주요 가이드라인들을 검토하였다. Pubmed에서는 2006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영문으로 발표된 임상연구(clinical trial)를 중심으로 검색하였는데, 검색 주제는 1) "colon adenoma" or "colon neoplasm" or "colon

polyp” or “colorectal cancer”, 2) “screening”, “asymptomatic” or “average risk”, 3) 각 선별검사법에 따른 주제어, 4) 각 검사법의 비교 검사법인 “colonoscopy” or “sigmoidoscopy”로서 교집합으로 문헌을 검색하였다. 역학에 사용된 주제 검색어는 “Korean”이었으며, 대변잠혈검사법에는 “stool tests” or “fecal occult blood test” or “FOBT” or “FIT” or “fecal immunochemical test”, CT 대장조영술에는 “CT colonography” or “CTC” or “virtual colonoscopy” or “VC” or “colonography, computed tomographic”, 이중조영바륨관장술에는 “double contrast barium enema” or “barium study” or “DCBE”의 주제 검색어가 사용되었다. 각 문헌의 연구디자인 고안과 간섭, 그리고 질에 대한 정보를 수렴하여 실무위원 간 의견을 모아 질적 한계를 가진 논문은 제외하였다.

선별검사의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검색된 문헌은 국외 문헌 총 6304건(역학 1409건, 대변잠혈검사 833건, CT 대장조영술 201건, 이중조영바륨관장술 45건, 구불창자내시경 2743건, 대장내시경 1073건), 국내 문헌 총 31건(역학 10건, 대변잠혈검사 8건, CT 대장조영술 0건, 이중조영바륨관장술 0건, 구불창자내시경 4건, 대장내시경 10건)이었다. 중복 검색된 문헌을 배제하고 논문 제목이나 초록 전문으로 검토하여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헌을 배제하였으며, 필요시 논문 전문을 검토하여 자료의 적합성을 판단한 후 최종적으로 총 148건(역학 26건, 대변잠혈검사 24건, CT 대장조영술 32건, 이중조영바륨관장술 18건, 구불창자내시경 29건, 대장내시경 19건)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소제목별 문헌검색의 방법은 Fig. 1과 같으

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헌들로부터 각 핵심질문에 해당되는 자료를 추출하기 위해 표준화된 근거표를 작성하였다.

메타분석

대변잠혈검사와 CT 대장조영술을 주제로 메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은 모두 관찰연구였으며, 연구 간의 임상적 이질성(heterogeneity)을 최소화하고자 대상 환자군, 검사 방법 등이 동질적인 연구들을 선정하였다.

대변잠혈검사에서는 대장내시경과 비교한 대장암 및 대장 진행샘종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구하였다. 대장폴립의 진단검사로서 진단율(detection rate)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기존의 guaiac 검사법과 면역화학검사법 그리고 대변잠혈검사를 1회 시행한 경우와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 대한 메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간 이질성을 최소화하고자 무증상 평균위험군, 재수분화(rehydration) 여부, 검사법, 횡수, 양성 역치 등이 동일한 연구들로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메타분석을 위하여 두 검사법 간 그리고 시행 횟수별 대장폴립 진단율의 교차비(odds ratio: 이하 OR)를 이용하였다. CT 대장조영술에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무증상, 평균 위험군만을 대상으로 한 9개의 논문을 문헌검색을 통해 선정하고 메타분석을 시행하였다. 자세한 문헌검색 방법, 문헌평가, 근거표 작성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민감도 및 특이도는 대장내시경과 비교되는 각 검사법의 폴립 진단의 진양성, 가양성, 진음성, 가음성의 수치들이 추출 가능한 논문으로부터 계산될 수 있었으며, 각 수치들이 제시되지 않은 문헌들은 분석에서 배제되었다. I² 값이 50% 이상이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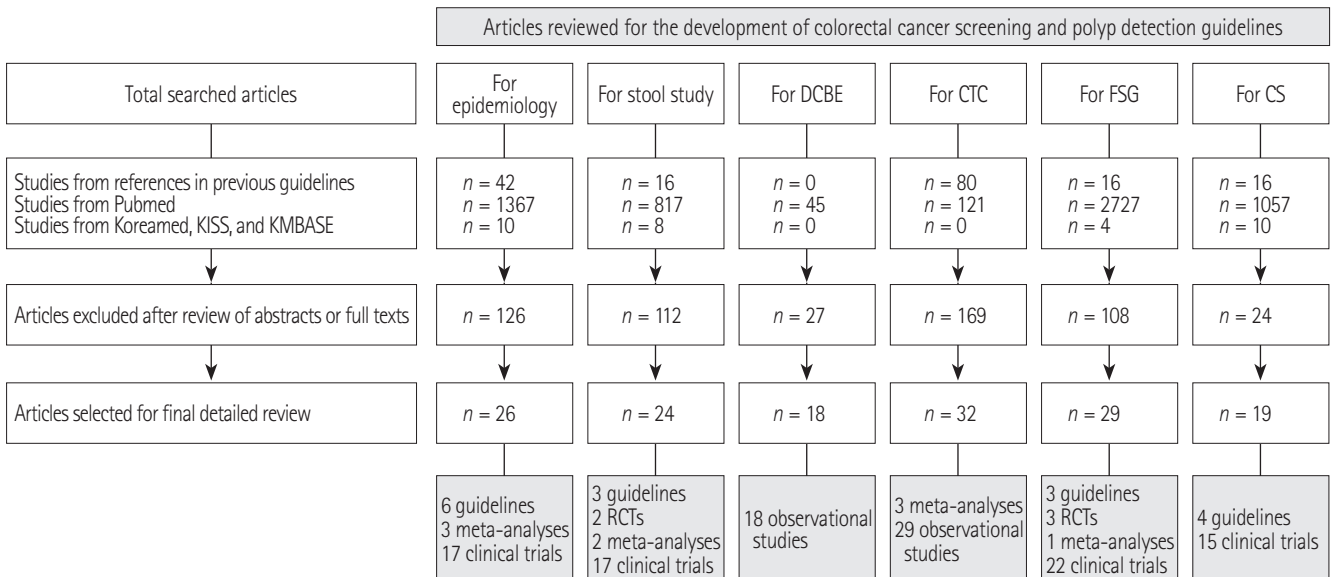


Fig. 1. Study selection.

Note.—CS = colonoscopy, CTC = CT colonography, DCBE = double contrast barium enema, FSG = flexible sigmoidoscopy, KISS = Korean Studies Information System, KMbase = Korean Medical database, RCT = randomized controlled trial

Cochran의 Q-검정 결과 $p < 0.1$ 인 경우 통계적 이질성(statistical heterogeneity)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각 진단 검사법의 민감도 및 특이도 산출은 Meta-disc 1.4 (The Ramón y Cajal Hospital, Madrid, Spain)를 이용하였으며 그 외의 메타 분석은 Review Manager (The Cochrane Collaboration, Oxford, UK version 5.1)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근거의 질 및 권고 등급

최종 선정된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메타분석 등을 통해 종합한 근거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권고안이 어느 정도의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근거의 질(quality of evidence)과 권고안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권고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권고의 강도(strength of a recommendation)는 GRADE Working Group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따랐다(Table 1)(7, 8).

근거의 질은 근거가 무작위 대조 연구로 구성된 경우 “높음(high quality)”으로 평가하였고, 근거에 관찰 연구가 포함된 경우 “낮음(low quality)”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근거로 사용된 연구들에 설계 또는 수행의 제약(limitation in study design or execution), 결과의 불일치(inconsistency of results), 중재 효과 비교의 간접성(indirectness of evidence), 결과의 부정확성(imprecision of results), 또는 출판 오류(publication bias)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거의 질을 하향 조정하였다. 근거의 질 평가에서 근거의 질이 하향 조정되지 않은 관찰 연구에서 효과가 큰 경우(large effect), 가능한 교란변수(plausible confounding)에 의해 보고된 효과가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용량-반응 관계(dose-response gradient)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거의 질을 상향 조정하였다. 권고의 강도는 바람직한 효과와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의 균형(balance of desirable and undesirable consequences), 근거의 질, 가치와 선호에 대한 확신(confidence in values and references), 의료 비용 및 자원의 효과적 배분을 고려하여 “강력히 권고함(strong recommendation)” 또는 “권고함(weak recommendation)”으로 평가하였

다. 즉, 대부분의 환자에게 권고를 따랐을 때 중요한 건강상의 이득 또는 손실이 있음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력히 권고함”으로 하였고, 권고를 따랐을 때 중요한 건강상의 이득 또는 손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환자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여 환자 개인의 환경과 선호, 가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 “권고함”으로 하였다(7, 8).

한국에서 대장암과 대장샘종의 역할

한국에서 대장암의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는가?

한국에서 대장암의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다.

- 근거의 질: 낮음
- 동의 수준: 전적으로 동의함(87%), 대체로 동의함(13%), 일부 동의함(0%),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0%),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대장암은 전통적으로 서구에서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였으나 최근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장암의 유병률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생활습관의 서구화와 비만인구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2년 자료에 의하면 대장암의 연령표준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북미 44.4명 및 유럽 42.9명과 비교하여 일본 49.3명, 한국 24.7명, 싱가포르 35.1명으로 동아시아 국가에서 대장암이 전체 암발생 순위 중 남녀 모두에서 3위에 해당하였다(9). 한국중양암등록 사업에 의하면 1999년 대장암의 연령표준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1.2명이었으나 2005년 31.7명, 2008년 35.1명으로 매년 6.3%씩 증가하고 있다(1, 10-12). 성별로 분석하면 남성에서는 1999년 대장암의 연령표준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7.0명에서 2008년 47.0명으로 매년 6.9%씩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에서는 17.1명에서 25.6명으로 매년 5.2%씩 증가하여 2008년 남

Table 1. Quality of Evidence and Strength of a Recommendation

Quality of Evidence	
High quality	Further research is very unlikely to change our confidence in the estimate of effect.
Moderate quality	Further research is likely to have an important impact on our confidence in the estimate of effect and may change the estimate.
Low quality	Further research is very likely to have an important impact on our confidence in the estimate of effect and is likely to change the estimate.
Very low quality	Any estimate of effect is very uncertain.
Strength of a Recommendation	
Strong recommendation	Most or all individuals will be best served by the recommended course of action.
Weak recommendation	Not all individuals will be best served by the recommended course of action. There is a need to consider more carefully than usual individual patient's circumstances, preferences, and values.

녀에서 각각 두 번째와 네 번째로 호발하는 암이 되었다. 암사망율은 위암이나 간암에서 감소하는 데 반하여 대장암에서는 증가하여 남자에서 4위, 여자에서 3위에 해당하였다.

한국에서 대장샘종의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는가?

한국에서 대장샘종의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다.

- 근거의 질: 매우 낮음
- 동의 수준: 전적으로 동의함(53%), 대체로 동의함(35%), 일부 동의함(5.0%),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5.0%),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2%).

국내에서 대장암의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대장샘종의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후향적 연구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선별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받은 50세 이상 성인 2435명 중 30.2%에서 대장샘종이 발견되었으며 진행샘종은 4.1%에서 발견되었다(13). 남성에서는 샘종이 35.9%, 진행샘종이 5.1%, 여성에서는 샘종이 18.7%, 진행샘종이 2.0%에서 발견되어 남성에서 유병률이 높았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선별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50세 이상 성인 2307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전향적 다기관 연구에서도 대장샘종이 40.5%에서 발견되었으며, 진행샘종은 2.5%였다(14). 이상의 국내 연구에 의하면 샘종 유병률은 서구의 25~38%와 비교하여 비슷한 결과를 보이거나 진행샘종은 서구의 6.1~10.5%와 비교하여 낮은 결과를 보였다(15, 16). 그러나 연령으로 보정하였을 경우 진행샘종의 유병률도 서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13).

대장폴립 선별검사 가이드라인

선별검사 시행 시기

선별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50세 이하의 평균위험군에 비해 50세 이상에서 대장암 또는 대장샘종의 유병률이 높은가?

평균위험군에서 대장암 선별과 대장샘종 진단검사는 50세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고한다. 단, 대장암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경우 50세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 근거의 질: 낮음
- 권고의 강도: 강력히 권고함
- 동의 수준: 전적으로 동의함(42%), 대체로 동의함(50%), 일부 동의함(5%),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3%),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대장암 및 대장샘종의 발생률은 나이에 따라 증가한다. 한국중양암등록사업의 2008년 통계에 의하면 대장암의 연령군별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40~49세에서 28.8명, 50~59세에서 82.5명, 60~69세에서 174.5명, 70세 이상에서 245.7명으로 50세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하였다(1). 선별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하여 나이에 따른 진행샘종의 발견율을 비교해 보면 40~49세 연령과 비교하여 50~54세 연령에서 진행샘종의 위험성이 1.82배(95% CI, 1.38~2.40)로 증가하였으며 55~59세 및 60~66세 연령에서 각각 2.38배(95% CI, 1.81~3.14)와 2.91배(95% CI, 2.21~3.83)로 증가하여 50세 이상에서 선별대장내시경검사를 하였을 때 진행샘종의 발견율이 높았다(17). 11개 아시아 국가에서 전향적으로 진행된 선별대장내시경검사 연구에 의하면 50세 이하에서 전체 신생물과 진행신생물이 11.2%, 2.0%인데 반하여 50세 이상에서는 23.9%, 5.8%로 50세 이상에서 대장 신생물의 유병률이 증가함을 보였다.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50세 이하의 무증상 평균 위험군에서 대장샘종 및 진행샘종이 14.3~22.6%, 1.1~1.6%인데 비하여 50세 이상에서는 29.8~40.5%, 2.5~3.7%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13, 14). 이상의 근거를 기반으로 평균위험군에서 대장암 선별과 대장폴립 진단검사는 일반적으로 50세 이상에서 권고된다. 그러나 대장암이나 대장폴립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대장내시경검사를 포함하는 적절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변잠혈검사

대변잠혈검사는 대장 내 종괴에서 스며나오는 출혈을 대변에서 감지하여 진단하는 검사법이다. 대변잠혈검사는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하여 대부분의 외국 가이드라인에서 대장암의 효과적인 집단 선별검사법으로 채택되어 시행되어 왔다. 과거에는 주로 guaiac 검사법을 사용하였으나 1970년대에 면역화학검사법이 개발되어 1980년대에 상품화된 이후(4), 대변잠혈검사는 크게 두 검사법으로 나뉘어진다. 대장암의 선별검사로 대변잠혈검사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검사 전의 식이제한 여부, 검사 횟수 및 재수분화 등의 검사법 간의 이질성으로 인해 각 연구마다 다양한 진단율이 제시되었다.

50세 이상의 평균위험군에서 대장암 선별검사로 대변잠혈검사를 시행한 군은 시행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대장암의 발생률 및 사망률이 감소하는가?

50세 이상의 평균위험군에서 대변잠혈검사는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 대장암의 선별검사로 권고한다. 이는 검사 양성일 때 대장내시경검사가 수행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 근거의 질: 보통
- 권고의 강도: 강력히 권고함
- 동의 수준: 전적으로 동의함(50%), 대체로 동의함(33%), 일부 동의함(11%),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6%),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무증상 평균위험군에서 선별대장내시경검사와 비교하여 기존 검사법인 Hemocult II 검사를 재수분화 과정 없이 1회 시행할 경우 대장암에 대한 진단 민감도는 12.9~37.1%이지만, 고민감도 guaiac 검사법인 Hemocult SENZA 검사를 시행할 경우 79.4%로 증가한다(18-21). 반면에 대장내시경검사와 비교한 진단 특이도는 Hemocult SENZA의 경우 기존의 guaiac 대변잠혈검사보다도 낮은 경향을 보였다. 대변잠혈검사 결과를 구불창자내시경검사와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Hemocult II의 대장암에 대한 진단 특이도는 97.7%였지만, Hemocult SENZA의 특이도는 86.7%였다(21). 메타분석으로부터 산출한 Hemocult SENZA의 대장암 진단의 통합 민감도는 74.5% (61.0~85.3%)였으며, 특이도는 88.1%(87.6~88.7%)였다 (18, 21, 22). 한편, 메타분석에 의하면 대변 면역화학검사의 대장암 진단의 통합 민감도는 73.0%(63.4~80.8%)였고, 특이도는 94.8%(94.6~95.1%)였다(18, 22-24).

대변잠혈검사를 반복함으로써 진단 민감도를 높일 수 있는데, 면역화학검사에 대한 3개의 관찰 연구로부터 메타분석한 결과, 검사를 1회 시행한 경우에 비해 연속적으로 2회 반복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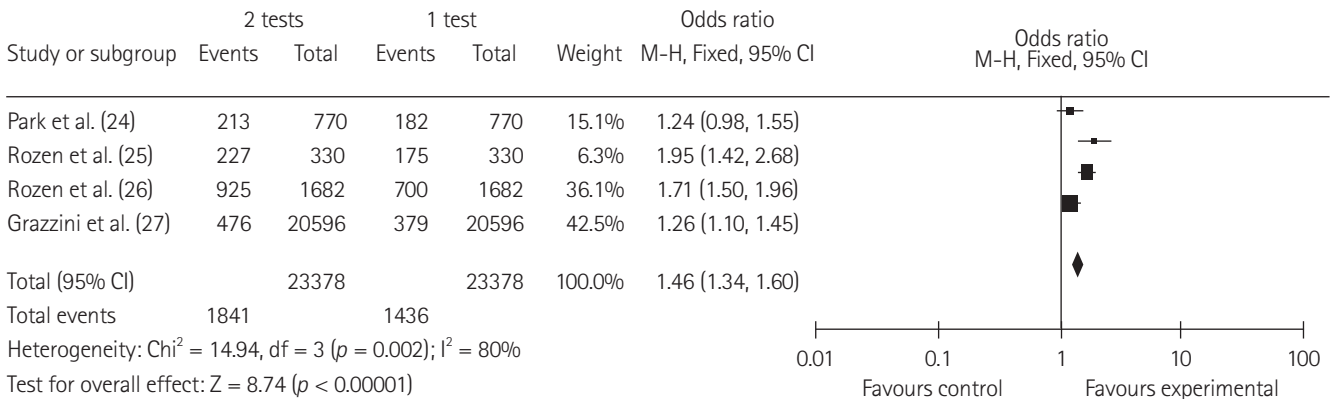


Fig. 2. Meta-analysis. Detection rate of FIT for advanced colorectal neoplasia according to the number of samples (1 test vs. 2 tests). Note.—CI = confidence interval, FIT = fecal immunochemical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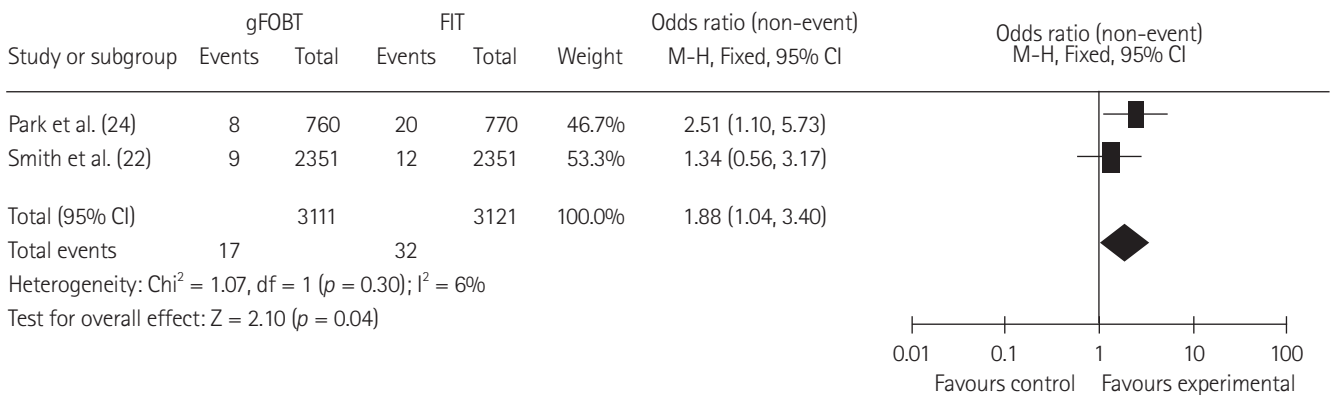


Fig. 3. Meta-analysis. Comparison between gFOBT and FIT in detection of colorectal cancer in average risk group. Note.—CI = confidence interval, FIT = fecal immunochemical test, gFOBT = guaiac-based fecal occult blood test

경우 대장암과 진행샘종을 포함한 대장 진행신생물의 진단 정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OR 1.46, 95% CI 1.34~1.60, $p < 0.01$)(24-27)(Fig. 2).

대변잠혈검사는 대장내시경검사와 비교하여 대장암에 대한 진단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구집단에서 집단선별검사로서 유용함이 대규모 연구들을 통하여 증명되었다. 8년에서 13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들에 의하면 guaiac 검사가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15~30% 감소시켰고(28-30), 18년간 진행된 코호트 연구에서도 guaiac 검사로 인해 대장내시경검사의 검사 빈도가 증가하고 대장암 전구병변인 샘종을 제거함에 따라 대장암의 발생률도 20%까지 감소시켰다(31). 비교적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4215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13년간의 코호트 연구에서 대변 면역화학검사는 대장암 사망률을 70% 감소시켰으며, 진행성 대장암의 발생률도 의미 있게 감소시켰다(32). 이 연구들 모두 대변잠혈검사 양성일 경우 대장내시경을 수행했다는 중요한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즉, 대변잠혈검사 양성일 경우 대장내시경검사가 뒤이어 시행되어 병변을 조기 진단 및 치료하게 됨으로써 사망률을 감소 시킨 것이다.

대장샘종에 대한 대변잠혈검사의 진단 민감도는 대장내시경 검사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낮다. 무증상 평균위험군에서 진행 샘종에 대한 진단 민감도는 Hemoccult SENSAs의 경우 44% (35.5~52.0%)였으며(18, 22) 면역화학검사법의 경우 24% (21.6~27.5%)였다(18, 22-24). 대장 진행샘종에 대한 진단 특이도는 각각 90%(89.5~91.1%)와 95%(94.9~95.4%)였다. 따라서, 대변잠혈검사는 대장샘종의 진단검사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Supplementary Fig. 1 online).

50세 이상의 평균위험군에서 대장암의 선별검사로 기존의 guaiac 대변잠혈검사에 비해 대변 면역화학검사가 더 우월한가?

50세 이상의 평균위험군에서 대장암의 선별검사로 기존의 guaiac 대변잠혈검사에 비해 대변 면역화학검사를 우선적으로 권고한다.

- 근거의 질: 낮음
- 권고의 강도: 강력히 권고함
- 동의 수준: 전적으로 동의함(46%), 대체로 동의함(49%), 일부 동의함(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2%),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평균위험군에서 대장암의 선별검사로 기존의 guaiac 대변잠혈검사에 비해 대변 면역화학검사가 더 우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검사의 진단 민감도와 편리성 및 순응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장암 진단에 guaiac 대변잠혈검사와 면역화학검사 중 어느 것이 진단 정확도가 높은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대부분이 관찰연구들이고, 각 연구 대상 및 방법 간의 이질성으로 인해 비교 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무증상 평균위험군에서 기존의 guaiac 검사 및 면역화학검사 간의 진단율(detect rate)을 비교한 메타분석에서는 대장암의 진단 정확도가 면역화학검사에서 더 우월하였다(OR 1.88, 95% CI 1.04~3.40, $p = 0.04$)(22, 24, 33)(Fig. 3). 그러나, 무증상의 평균위험군에서 고민감도 guaiac 대변잠혈검사인 Hemoccult SENSAs와 면역화학검사의 대장암 진단율을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235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두 검사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OR 1.75, 95% CI 0.73~4.19, $p = 0.21$)(4, 22). 고민감도 guaiac 대변잠혈검사와 면역화학검사 간의 진단 민감도에 대해서는 추가의 연구가 필요하다.

대변잠혈검사 중 어느 검사법이 유용한가는 검사의 편의성 및 환자의 순응도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Guaiac 검사는 혈액 내 peroxidase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식이 및 약물 복용, 검체의 재수분화 여부 등에 따라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검체 채취를 2~3회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Guaiac 검사는 검사 전 7일 이내에 아스피린,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를 복용하거나 3일 이내에 육류, 생선을 섭취한 경우 가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비타민 C를 복용한 경우에는 peroxidase 반응을 방해하여 가음성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검사 3일 전부터 250 mg 이상의 비타민 C 제제, 과일, 주스 등을 피해야 한다. 재수분화는 검사 전 샘플이 담긴 슬라이드에 물 한 방울을 추가하는 것으로 민감도를 증가시키지만 가양성률을 높여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받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권고하지는 않는다(4, 34).

반면, 면역화학검사는 사람의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글로빈(globin)에 대한 특이 항체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식이 및 약제의 제한이 없다. 또한 글로빈 성분은 상부 위장관 효소에 의해 분해되므로 상부위장관 출혈에 의한 가양성이 적어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34, 35). 면역화학검사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있는데 검사 횟수, 방법, cut off 값 등은 제조사에서 결정한 방법 및 수치를 따라야 한다. 면역화학검사는 기존의 guaiac 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위에 열거한 편리성 때문에 검사 순응도가 52.7%로 기존의 guaiac 검사의 43.9%보다 유의하게 높다(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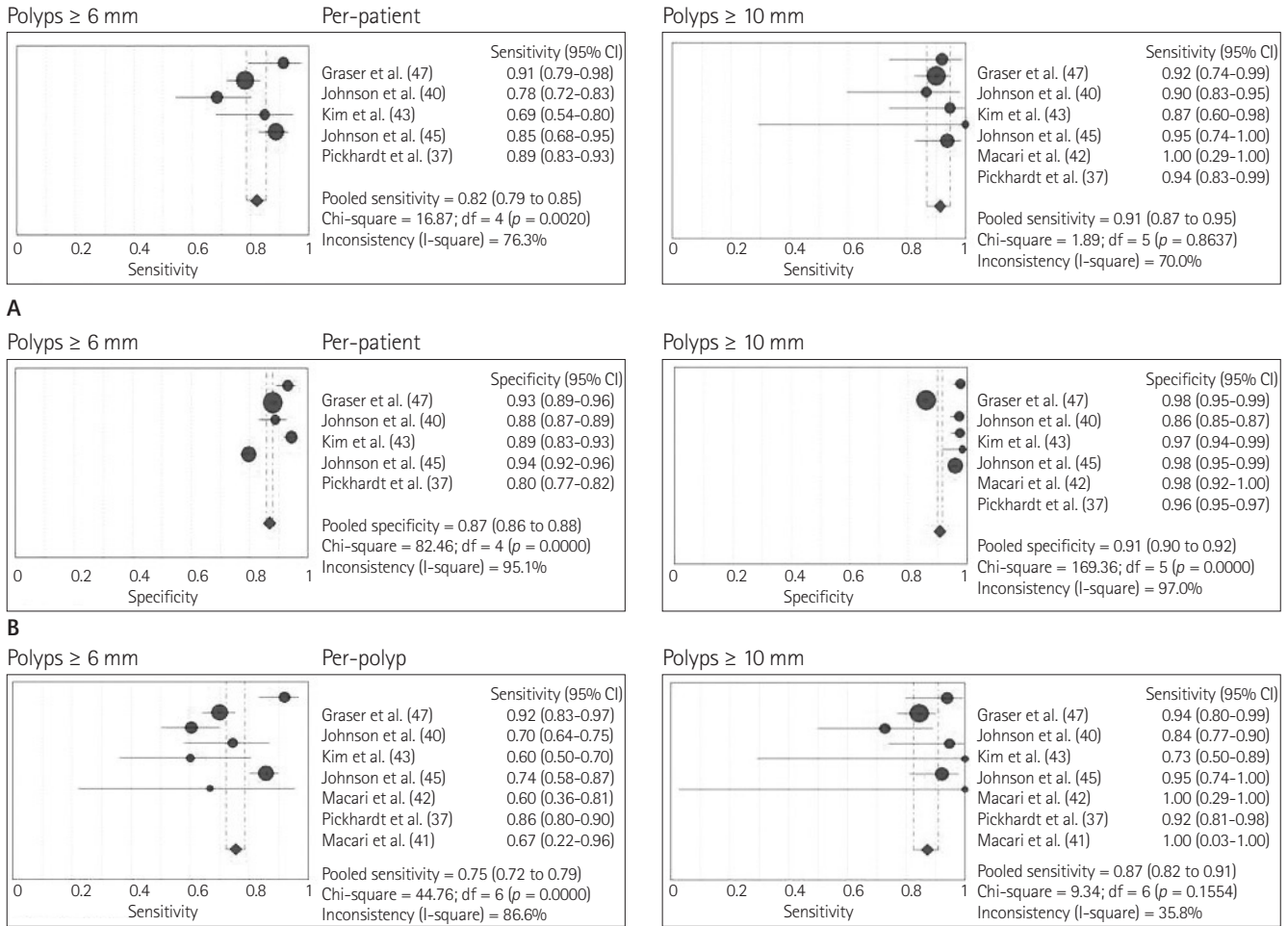


Fig. 4. Meta-analysis of CT colonography. Reported sensitivity and specificity in the included studies, by polyp size.
A. Per-patient sensitivity for CT colonography.
B. Per-patient specificity for CT colonography.
C. Per-polyp sensitivity for CT colonography.

CT 대장조영술

CT 대장조영술은 “가상 대장내시경”이라고도 불리며, CT 및 컴퓨터 영상 그래픽 기술의 놀라운 발전에 힘입어 가능해진 검사이다. CT 대장조영술의 검사 순서는 잔변 표지자 섭취, 대장 전처치, 대장 부풀리기, CT 촬영, 영상 판독 순인데 다른 CT 검사와 달리 CT 촬영 전 과정이 CT 촬영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즉, 환자는 검사 전에 CT 대장조영술 영상에서 대변이 희게 보이도록 잔변 표지자를 먹고, 깨끗하게 대장을 비운 후 내원해야 하며, CT 촬영 전에 대장을 충분히 부풀려야 좋은 질의 대장 영상을 얻을 수 있다. CT 촬영은 양와위 및 복와위로 자세를 바꿔가며 두 차례 시행하고, 검사시간은 대략 10분 정도이다. 진정제 사용은 불필요하여 검사 후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최근 장 전처치가 필요 없는 CT 대장조영술 기법이 소개되고 있으나, 그 효용성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

지 않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50세 이상의 평균위험군에서 CT 대장조영술은 대장암 선별과 대장폴립 진단검사로 권고될 수 있는가?

50세 이상의 평균위험군에서 CT 대장조영술을 대장암 선별과 대장폴립 진단검사 중 하나로 권고한다.

- 근거의 질: 낮음
- 권고의 강도: 권고함
- 동의 수준: 전적으로 동의함(27%), 대체로 동의함(34%), 일부 동의함(26%),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13%),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최근의 많은 연구들에서 대장암 선별검사의 일차적 목적인 대장암 및 진행샘종의 발견에 있어 최신의 영상 및 판독 기법을 사용한 CT 대장조영술의 진단 정확도는 대장내시경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하고 있다(37-47). 1233명의 무증상 평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논문에 따르면, 10 mm 이상의 진행샘종에 대한 CT 대장조영술의 환자별 진단 민감도는 94%, 특이도는 96%로 이는 대장내시경검사 민감도인 88%보다 높았다(37). 그러나, 그 후 발표된 논문에서는 10 mm 이상의 샘종에 대한 CT 대장조영술의 환자별 진단 민감도가 각각 55%와 59%로 이전 논문과는 매우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48, 49). 후자의 연구들은 최신 CT 대장조영술 기법을 사용하지 않아 많은 제한점이 있는 연구들이다. 각각 33개와 47개의 전향적 연구들이 포함되었던 2005년과 2009년 메타분석에 따르면(38, 39), 대장폴립 진단에 대한 CT 대장조영술의 환자별 민감도와 특이도는 10 mm 이상의 폴립에 대해서는 각각 83~85%와 92~97%였으며, 6~9 mm의 폴립에 대해서는 60~70%와 90~93%였다. 이후 대규모 무증상 평균위험군을 대상으로 최신 CT 대장조영술 기법을 이용한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Imaging Network 연구는 미국 15개 우수기관에서 253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거의 전 예에서 잔변 표지자, 자동 CO₂ 주입기, 16채널 이상의 다검출기 CT, 3D 기법을 이용한 판독과 같은 최신 기법을 이용하였다(40). 그 결과 10 mm 이상의 샘종에 대한 환자별 검출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90%와 86%였으며, 6 mm 이상의 샘종에 대해서는 각각 78%와 88%였다. 이처럼 CT 대장조영술의 정확도는 사용한 기법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절편이 얇을수록, 다검출기 CT 스캐너를 이용한 경우, 3D fly-through 기법을 이용하여 판독하였을 때 정확도가 증가한다(38). 이에 미국방사선학회에서는 CT 대장조영술 검사를 시행할 때 적절한 대장 전처치와 최적화된 영상 및 판독 기법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50).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CT 대장조영술의 정확도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CT 대장조영술 시행시 환자는 적절한 전처치를 수행해야 하고, 다검출기 CT 스캐너를 이용해 저선량으로 촬영해야 하며, CT 대장조영술을 판독할 수 있는 특화된 소프트웨어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판독은 대장내시경으로 확진된 증례를 이용하여 적절히 트레이닝을 받은 영상의학과 의사가 시행하는 것과 같은 전제 조건을 지킬 것이 권고된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무증상 평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한 9개의 논문을 메타분석한 결과(37, 40-47)에 따르면, CT 대장조영술의 환자별 폴립 진단 민감도는 78~100%였고, 폴립의 크기가 커질수록 민감도가 향상되었다. 10 mm 이상의 폴립에 대한 통합 민감도는 91.3%였고, 6 mm 이상 크기의 폴립에

대해서는 82.2%였다. CT 대장조영술의 폴립별 진단 민감도는 60~100%였고 폴립의 크기가 커질수록 민감도가 향상되었다. 즉, 10 mm 이상의 폴립에 대한 폴립별 통합 민감도는 87.2%였고, 6 mm 이상의 폴립에 대해서는 75.4%였다. CT 대장조영술의 환자별 폴립 진단 특이도는 80~99%였으며, 6 mm 이상의 폴립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폴립의 크기와 무관하게 특이도는 일정한 결과를 보였다. 메타분석 결과는 Fig. 4와 부록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CT 대장조영술은 대장천공 및 출혈과 같은 합병증의 빈도가 매우 낮아 안전한 검사기법이다(37, 40, 44, 47, 51-54). 무증상 환자에서 CT 대장조영술을 시행할 경우 대장천공의 위험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T 대장조영술과 관련된 대장천공이 언급된 8개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37, 40, 44, 47, 51-54), 이 중 각각 11개와 16개 기관의 데이터가 포함된 두 개의 다기관 연구에서 각각 2예(0.009%)와 7예(0.06%)의 대장천공만이 보고되었다(53, 54). 총 9예의 대장천공 중 선별검사 목적의 무증상 성인에서 발생한 경우는 단 한 예에 불과하여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특히, 대장을 팽창시킬 때 일반 공기를 손으로 주입하는 것보다 CO₂ 가스를 자동 주입기를 이용하여 넣을 경우 더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5).

CT 대장조영술은 CT 영상을 기반으로 시행하므로 대장뿐 아니라 대장 이외 상·하복부 장기가 스캔되어 우연히 대장 외 병변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장 외 병변이 언급된 11개의 CT 대장조영술 연구를 분석한 결과(37, 40, 44, 56-63), CT 대장조영술에서 대장 외 병변이 발견되는 빈도는 18~98%이지만, 이 중 임상적으로 “높은” 중요도의 의미 있는 병변의 빈도는 2~35% 정도이다. 무증상 평균위험군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대장 외 병변이 발견될 빈도는 대략 4.5% 정도로 알려져 있다(57). CT 대장조영술에서 무증상의 5.5 cm 이상의 대동맥류나 대장 외 장기의 악성 신생물이 발견될 경우, 조기 발견 및 치료를 가능케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큰 유익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통해 비용 상승, 방사선 피폭의 증가, 생검과 관련된 합병증 등의 위험 및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소지가 있다.

CT와 연관된 방사선 피폭 역시 CT 대장조영술의 제한점 중 하나이다. 최근 미국 Health Physics Society에서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50~100 mSv 이하의 저선량 방사능에 의해 유발될 문제는 거의 없거나 무시할 수 있다고 한다(64). 그러나, 영상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평생 노출되는 방사선 검사 빈도가 크게 증가하게 되고 일부에서는 우려할 만한 용량 이상으로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50세 환자에서 7~13 mSv 용량으로 CT

대장조영술 검사를 시행 받을 경우 전 생애에 걸쳐 대장암이 발생할 평생위험도는 0.044%, 몸 어느 곳에서든지 암이 발생할 위험은 0.14%이다(65). 최근 저선량 CT 대장조영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50 mAs의 용량으로 4채널 다검출기 CT를 이용하여 검사할 경우 폴립 발견율의 감소없이 방사선량을 5~8 mSv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50 mAs 이하의 저선량 검사가 강력히 권고된다(66).

이상과 같이 CT 대장조영술은 높은 진단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미국의 American Cancer Society (이하 ACS), US Multi-Society Task Force on Colorectal Cancer, 그리고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제시한 2008년 가이드라인에서 대장암 선별검사 및 대장폴립 진단검사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4).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CT 대장조영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전제 조건들을 갖춘 기관이 제한되어 있어, 대규모의 선별검사를 감당하기에는 다소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CT 대장조영술은 비침습성과 대장 전체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 자체의 장점과, 도입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빠른 속도로 개발 및 발전되는 양상을 볼 때 향후 우리나라에도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고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CT 대장조영술에서 6 mm 이상의 폴립이 발견된 경우 대장 내시경검사가 필요한가?

CT 대장조영술에서 6 mm 이상의 폴립이 발견된 경우 대장내시경검사를 권고한다.

- 근거의 질: 매우 낮음
- 권고의 강도: 강력히 권고함
- 동의 수준: 전적으로 동의함(78%), 대체로 동의함(22%), 일부 동의함(0%),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0%),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CT 대장조영술에서 10 mm 이상의 폴립이나 3개 이상의 6~9 mm 폴립이 발견된 경우 진단대장내시경검사 및 폴립절제술을 시행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4, 67). 그러나, CT 대장조영술에서 발견된 2개 이하의 6~9 mm의 폴립을 어떻게 조치할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6~9 mm의 폴립 가운데 진행샘종의 빈도는 보고자마다 매우 다양한데, 최근 선별검사를 받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따르면 그 빈도는 2.7~5.3%로 기존의 고위험군에서 보고된 10%와 비교하여 낮다(68). 6~9 mm 폴립의 자연경과에 관해서는, 1990년 이

전에 대장내시경검사나 이중조영바륨관장술을 이용한 여러 연구들에서 6~9 mm 폴립의 일부에서만 추적검사에서 크기가 증가하며 대체적으로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보고되었다(69-72). 최근 CT 대장조영술을 이용한 연구에서 128개의 6~9 mm 폴립을 평균 1.5년 추적 관찰하였을 때, 12개의 폴립(9.4%)만 크기가 증가되고 나머지는 크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작아지거나 사라졌다(73). 그러나, 6~9 mm 폴립에 대한 대규모 자연경과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6~9 mm 폴립의 자연경과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는 CT 대장조영술에서 발견된 6~9 mm의 폴립에 대해 추가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대장내시경검사를 거부하거나 시행하기에 어려운 환자들의 경우 CT 대장조영술을 이용하여 추적 관찰할 것을 권고한다.

CT 대장조영술에서 음성 결과를 보일 경우 추적검사 주기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또한, CT 대장조영술에서 발견된 5 mm 이하의 폴립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학제 간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기관에서 서로 상반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67, 74, 75). 5 mm 이하의 폴립에서 진행샘종이 발견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선별검사를 받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 보고에 따르면 그 빈도는 1.7% 정도이다(76). 이처럼 5 mm 이하 폴립의 낮은 위험도와 6 mm 이상 폴립에 대한 CT 대장조영술의 높고 일관된 검출 민감도(80% 이상)를 고려하면(11, 37, 40-47), 5년 주기의 CT 대장조영술 혹은 대장내시경검사를 이용한 추적검사를 권고할 수 있다.

이중조영바륨관장술

이중조영바륨관장술은 직장에 가는 관을 넣고 공기와 고밀도 바륨을 주입하여 대장 벽을 바륨으로 코팅하여 관찰하는 영상기법이다. 환자는 투시 테이블에 누운 채로 자세를 바꿔가며 여러 장의 X-선 사진을 촬영하여 결장 및 직장 전반의 내강 상태를 검사하게 된다. 검사시간은 대략 10~20분 정도이며, 검사 중 혹은 검사 후 약간의 복부 불편감은 있지만, 진정제 사용은 불필요하여 검사 후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50세 이상의 평균위험군에서 이중조영바륨관장술은 대장암 선별검사로 권고될 수 있는가?

50세 이상의 평균위험군에서 이중조영바륨관장술을 대장

암 선별검사 중 하나로 권고한다.

- 근거의 질: 낮음
- 권고의 강도: 권고함
- 동의 수준: 전적으로 동의함(19%), 대체로 동의함(6%), 일부 동의함(3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36%),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6%).

이중조영바륨관장술의 대장암 혹은 대장폴립의 진단율을 보고한 많은 논문들은 대부분 후향적 연구들이고 무증상 혹은 평균위험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디자인에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77-89). 이중조영바륨관장술의 대장암 진단율을 평가한 많은 연구들에서는 독특한 연구방법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일정기간 내에 한 기관 혹은 한 집단에서 이중조영바륨관장술을 시행한 적이 있는 전체 환자에서 대장암 진단율을 평가함으로써 이중조영바륨관장술의 암 발견율을 계산한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중조영바륨관장술의 대장암 진단 민감도는 85~97%로 보고하고 있다(77-89). 그러나 최근의 한 연구 결과에서는 대장암의 간과율이 22.4%로 비교적 높게 보고되었는데, 이는 이중조영바륨관장술의 결과가 질 관리나 인력 관리 등과 같은 여러 요소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구 결과이다(90). 폴립의 진단율을 보고한 논문들은 연구 설계의 이질성이 심한데 특히, 연구 간에 목표 병변의 크기, 형태학적 분류, 병리학적 소견 등이 다양하여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 폴립절제술을 시행하고 추적 관찰하는 무증상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두 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 mm 이상의 샘종에 대한 이중조영바륨관장술의 민감도는 48%, 6~9 mm 샘종에 대해서는 53%의 민감도를 보였다(91, 92). 이 중 한 논문에서 진행샘종으로 진단된 8개의 폴립 중 6개가 이중조영바륨관장술에서 발견되어, 진행샘종에 대한 검사 민감도는 75%였다(93). 대장내시경검사서 폴립이 없었던 470명의 환자 중 83명에서 이중조영바륨관장술에서 양성 소견을 보여 특이도는 82.3%였다(92). 이중조영바륨관장술의 대장폴립에 대한 낮은 민감도를 고려할 때 대장폴립의 선별검사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중조영바륨관장술의 대장암 및 대장폴립 진단율은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으므로, 적절한 질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환자로 하여금 적절한 대장 전처치를 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검사시에는 환자가 복와위와 양와위 모두에서 영상 검사가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대장 전장이 바륨과 공기로 이중조영이 잘 되어, 저류된 바륨이나 퍼지지 않은 부분과 같은

대장 전장의 검사에 제한을 주는 요소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이중조영바륨관장술은 숙련된 전문의나 혹은 그 지도하에 시행 및 판독되어야 한다.

이중조영바륨관장술 시행과 관련된 대장천공은 매우 드물다. 이중조영바륨관장술을 시행한 1987명에서 대장 천공은 한 예도 없었으며(94), 영국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시행한 대규모 설문조사에서 대장천공은 25000명 중 한 명 꼴이었고(0.004%), 모든 종류의 주요 합병증의 빈도는 10000명 중 한 명(0.01%) 정도라고 보고하였다(95). 이는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발생하는 천공의 빈도(0.1%)와 비교하여 낮은 수치이다(4). 따라서, 이중조영바륨관장술은 대장내시경검사가 금기이거나 실패한 환자에서도 시행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이중조영바륨관장술은 대장암에 대한 높은 민감도와 접근성 및 비침습성을 바탕으로 1997년에 ACS에서 대규모 인구집단의 대장암 집단선별검사법으로 채택된 이후(96), 개정된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여전히 대장암 집단선별검사법 중 하나로 채택되고 있으나, 최근 그 검사 빈도가 감소하고 있어 향후 선별검사법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4, 73, 97). 그러나, 대장내시경검사 자원이 제한된 지역, 대장내시경검사가 금기이거나 실패한 경우에 선택적인 선별검사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중조영바륨관장술에서 6 mm 이상의 폴립이 발견된 경우 대장내시경검사가 필요한가?

이중조영바륨관장술에서 6 mm 이상의 폴립이 발견된 경우 대장내시경검사를 권고한다.

- 근거의 질: 매우 낮음
- 권고의 강도: 강력히 권고함
- 동의 수준: 전적으로 동의함(79%), 대체로 동의함(21%), 일부 동의함(0%),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0%),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이중조영바륨관장술에서 발견된 대장 내 병변의 적절한 추가 조치에 관한 양질의 연구는 제한적이다. 미국의 2008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중조영바륨관장술에서 한 개 이상의 6 mm 이상 크기의 폴립이 발견될 경우 추가적인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4). 또한, 대장암 및 폴립 선별검사들 중 대변잠혈검사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다음 추적검사에 적당한가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는 없다(97). 다

만,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폴립에 대한 이중조영바륨관장술의 낮은 민감도를 고려하였을 때, 대장 내 병변이 없거나 5 mm 이하의 폴립만이 발견된 경우 5년 후 CT 대장조영술 혹은 대장 내시경검사를 이용한 추적검사를 권고한다.

대장내시경검사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선별검사는 한번에 전체 대장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 중 발견되는 샘종이나 일부 조기암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별대장내시경검사 역시 장 정결과정이 필요하며 장 정결 정도는 검사의 정확도와 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장내시경검사는 일반적으로 검사 중 발생하는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 가벼운 수준의 진정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대장내시경검사의 합병증으로 천공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그 빈도는 약 0.09% 정도로(98) 주로 폴립절제술과 관련되어 발생한다.

대장내시경검사는 대장 폴립을 가장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제거까지 가능한 검사지만 확고한 표준 검사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보고에 따르면 대장내시경검사의 폴립 간과율은 1 cm 이상 샘종의 경우에 약 6~12%에 이르며(99, 100) 대장암의 경우에도 5%에 달한다(99, 101). 국내 연구에서도 전체 대장샘종의 간과율은 17.7%에 이르렀다(102). 따라서 대장내시경검사에서의 폴립의 간과율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대장내시경검사의 순수 관찰 시간은 적어도 평균 6분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103),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국가암검진 내시경 질 관리 평가에서도 대장내시경의 회수 시간을 평균 6분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104). 한 연구에서 평균 관찰 시간이 6분 이상이었던 대장내시경 검사자는 대장암 선별검사 대상자의 6.4%에서 1 cm 이상의 샘종을 발견한 반면 6분 이하인 검사자는 2.6%에서만 1 cm 이상의 샘종을 발견하였으며(105) 다른 연구에서도 약 6분을 기준으로 샘종을 잘 발견하는 검사자와 그렇지 못한 검사자로 나눌 수 있었다(106). 국내에서 전임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대장내시경 회수 시간과 폴립 발견율이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107). 하지만 피검사마다 대장의 길이, 구조, 정결도 등이 다르며 검사자마다 샘종 발견 능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내시경 회수 시간만으로 각 개별 내시경 검사의 질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검사자의 샘종 발견율이며 실제로 샘종 발견율이 낮은 대장내시경 의사가 검사를 시행한 후에는 중간암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는 보고가 있다(108).

50세 이상의 평균위험군에서 대장암 선별과 대장샘종의 진단검사로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하면 대장암 발생률과 그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50세 이상 평균위험군에서 대장암 선별과 대장샘종의 진단검사로 대장내시경검사를 우선적으로 권고한다.

- 근거의 질: 낮음
- 권고의 강도: 강력히 권고함
- 동의 수준: 전적으로 동의함(74%), 대체로 동의함(20%), 일부 동의함(6%),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0%),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선별구불창자내시경검사의 경우와 달리 아직까지 선별대장내시경검사가 대장암의 발생률과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가에 관한 전향적 무작위 대조군 연구는 없다. 그러나 대변잠혈검사나 구불창자내시경검사와 같은 선별검사가 양성인 경우 결국 대장내시경검사로 그 결과를 확인하고 폴립절제술 등을 통해 전암병변이나 조기암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장내시경검사 및 폴립절제술이 대장암 발생률이나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리란 것은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미국에서 시행된 National Polyp Study에 따르면 대장내시경검사 및 폴립절제술을 받은 코호트의 경우 3개의 다른 참조인에 비해 대장암 발생률이 76~90% 정도 감소하였으며(3) 또한 대장내시경검사를 자주 받은 지역에 사는 거주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았다(3). 또한 여러 환자-대조군 연구 및 코호트 연구에서 대장내시경검사 및 폴립절제술이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입증되었으며(3, 109) 대조군에 비해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약 65% 정도 감소시켰다(110).

하지만 이와 같은 대장암 예방 효과는 좌측 결장보다 우측 결장에서 낮을 가능성이 있다. 우측 결장의 대장암 예방효과가 감소하는 이유로는 우측 대장암의 발생기전이 좌측과 다르거나(111) 불충분한 대장 정결, 부적절한 관찰 등으로 인해 병변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등이다(112). 따라서 우측 대장의 병변을 잘 발견하기 위해서 충분한 장 정결과 관찰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0세 이상의 평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대장암 선별과 대장샘종 진단목적의 첫 대장내시경검사서 대장암이나 샘종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추적 대장내시경검사를 5년 이후에 한 경우와 5년 이내에 한 경우 대장암 발생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50세 이상 평균위험군에서 첫 선별대장내시경검사가 일정 질 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졌다면 대장암이나 대장샘종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5년 이후 추적 대장내시경검사를 권고한다. 단, 대장암 경고증상이 새롭게 발생한 환자를 포함하여 추적기간 내 중간암의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5년 이내라도 추적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 근거의 질: 매우 낮음
- 권고의 강도: 권고함
- 동의 수준: 전적으로 동의함(20%), 대체로 동의함(65%), 일부 동의함(9%),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6%),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0%).

첫 선별대장내시경검사(index colonoscopy)가 음성인 경우 추적 대장내시경검사를 언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하며 일부는 구불창자내시경검사 연구에 의한 간접적인 증거에 근거하고 있다(113, 114).

여러 코호트 연구 및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첫 선별대장내시경검사가 음성인 경우 대장암이나 진행샘종의 발생률은 최소 5년 이상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되었다(115-120). 특히 독일의 선별대장내시경검사 코호트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 대장내시경검사가 음성이었던 533명의 연구참가자 중 평균 11.9년의 추적검사 기간 동안 대장암이 발생한 예는 하나도 없었으며 진행샘종의 유병률도 대장내시경을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10년 이상 유의하게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평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별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대장샘종이나 대장암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검사시기를 최소 5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위의 대장내시경검사 후 낮은 대장 종양 위험도는 주로 소화기내시경 전문가들이 참여한 잘 고안된 수 천명 대상의 전향적 코호트 연구결과였다. 이와는 달리, 최근 캐나다의 대장암 등록 연구결과에서는 전체 등록된 대장암 환자 중에 2~9%가 과거 6~36개월 사이에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 받았던 과거력이 있어 대장내시경검사 후 대장암 또는 추적간격 내 대장암으로 보고되고 있다(121, 122). 후자의 연구결과가 주로 일차 진료기관 의사가 대규모의 인구 모집단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향적 환자-대조군 연구라는 점에서 대장암 검진이 주로 일차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장내시경 후 대장암 또는 추적간격 내 대장암의 빈도를 고려하여 추적기간 중 대장암 경고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추적기간 내 중간암의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에는 5년 이내라도 추적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대장내시경검사에서 장 정결이 불충분한 경우 다음 검사시기를 언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근거가 될만한 연구가 없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화기내시경 장 정결 상태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검사를 다시 반복하는 것보다는 추적 검사 시기를 앞당긴다고 하였으며(123) 한 후향적 연구에서 장 정결 상태가 적절하지 않았던 검사 중 3년 내 다시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하여 장 정결 상태가 적절하였던 216예의 경우 샘종의 간과율이 42%, 진행샘종의 간과율이 36%로 다른 추적검사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4). 따라서 대장내시경검사에서 장 정결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검진 간격보다 조기에 추적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구불창자내시경검사

구불창자내시경은 검사 범위가 대장내시경검사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본적인 검사 방법이 대장내시경검사와 동일하다. 선별구불창자내시경검사를 받는 피검자에게는 장 정결과정이 필요하며, 진정 내시경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약간의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고, 검사를 통한 대장암 예방효과가 검사 범위 내에 국한되며 구불창자내시경검사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 대장내시경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125).

현재까지 연구결과에 의하면(126, 127) 선별구불창자내시경검사를 통해 대장암의 발생률과 그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50세 이상의 평균위험군에서 대장암 및 대장샘종의 선별검사 방법 중 하나로 권고할 수 있다.

선별구불창자내시경검사이 적절한 장 정결 방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경구용 장 정결제가 관장보다는 정결효과가 우수하지만(128, 129) 일반적으로는 1~2회의 sodium phosphate 관장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125, 130-132). 내시경의 삽입 깊이는 주관적일 수 있지만(133) 일반적으로 비만복부 이상 또는 내시경을 후퇴시 항문연에서 40 cm 이상 관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125).

구불창자내시경검사서 생검을 통해 샘종이 확인된 경우에는 크기에 관계없이 대장내시경검사를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원위부에 샘종이 있는 경우 미소폴립이라 할지라도 근위부 종양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 2~5% 정도의 환자는 원위부 샘종 없이도 근위부에 진행신생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불창자내시경검사 후 검사 양성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일부에서 근위부 대장의 진행신생물을 놓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

다(134). 만약 구불창자내시경검사에서 5 mm 이상의 폴립이 발견되었으나 생검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135).

50세 이상의 평균위험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구불창자내시경검사에서 대장암이나 대장샘종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추적 구불창자내시경검사를 시행할 필요성은 적어 보인다(113, 114, 136, 137). 추적 구불창자내시경검사 시행 시기를 5년으로 할 것인지 5~10년과 같이 5년 이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결과가 제한적이며 기존의 진료 지침에서도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125, 138). 구불창자내시경검사를 통한 대장암 예방효과가 최소 5년 이상 지속되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검사 범위가 제한적이고 불충분한 장 정결 등으로 인한 검사의 질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선별구불창자내시경검사는 대장암 예방효과가 매우 길며(113, 114) 대장내시경검사의 경우 우측대장암의 예방효과가 좌측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139, 140) 비교적 효과적인 대장암 선별검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전체 대장을 검사하지 못한다는 점, 검사 소견이 양성인 경우 다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 내시경의사와 피검자의 선호도가 낮은 점,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장내시경검사 수가 등의 이유로 인해 국내에서는 일차적인 대장암 선별검사 및 대장폴립 진단검사로는 잘 사용되고 있지 않다.

요약

한국에서 대장암과 대장샘종의 역학

- 1) 한국에서 대장암의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다.
- 2) 한국에서 대장샘종의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다.

대장폴립 선별검사 가이드라인

선별검사 시행 시기

평균위험군에서 대장암 선별과 대장샘종 진단검사는 50세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고한다. 단, 대장암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경우 50세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대변잠혈검사

- 1) 50세 이상의 평균위험군에서 대변잠혈검사는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므로 대규모 인구집단에서 대장암의 선별검사로 권고한다. 이는 검사 양성일 때 대장내시경검사가 수행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 2) 50세 이상의 평균위험군에서 대장암의 선별검사로 기존

의 guaiac 대변잠혈검사에 비해 대변 면역화학검사를 우선적으로 권고한다.

CT 대장조영술

- 1) 50세 이상의 평균위험군에서 CT 대장조영술을 대장암 선별과 대장폴립 진단검사 중 하나로 권고한다.
- 2) CT 대장조영술에서 6 mm 이상의 폴립이 발견된 경우 대장내시경검사를 권고한다.

이중조영바륨관장술

- 1) 50세 이상의 평균위험군에서 이중조영바륨관장술을 대장암 선별검사 중 하나로 권고한다.
- 2) 이중조영바륨관장술에서 6 mm 이상의 폴립이 발견된 경우 대장내시경검사를 권고한다.

대장내시경검사

- 1) 50세 이상 평균위험군에서 대장암 선별과 대장샘종 진단검사로 대장내시경검사를 우선적으로 권고한다.
- 2) 50세 이상 평균위험군에서 첫 선별대장내시경검사가 일정 질 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졌다면 대장암이나 대장샘종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5년 이후 추적 대장내시경검사를 권고한다. 단, 대장암 경고증상이 새롭게 발생한 환자를 포함하여 추적기간 내 중간암의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5년 이내라도 추적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Jung KW, Park S, Kong HJ, Won YJ, Lee JY, Park EC, et al. Cancer statistics in Korea: incidence, mortality, survival, and prevalence in 2008. *Cancer Res Treat* 2011;43:1-11
2. Shim JI, Kim Y, Han MA, Lee HY, Choi KS, Jun JK, et al. Results of colorectal cancer screening of the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in Korea, 2008. *Cancer Res Treat* 2010;42:191-198
3. Winawer SJ, Zauber AG, O'Brien MJ, Ho MN, Gottlieb L, Sternberg SS, et al. Randomized comparison of surveillance intervals after colonoscopic removal of newly diagnosed adenomatous polyps. The National Polyp Study Workgroup. *N Engl J Med* 1993;328:901-906
4. Levin B, Lieberman DA, McFarland B, Smith RA, Brooks D, Andrews KS, et al. Screening and surveillance for the early detection of colorectal cancer and adenomatous

- polyps, 2008: a joint guideline from the American Cancer Society, the US Multi-Society Task Force on Colorectal Cancer, and the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CA Cancer J Clin* 2008;58:130-160
5.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Screening for colorectal cancer: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recommendation statement. *Ann Intern Med* 2008;149:627-637
 6. Whitlock EP, Lin JS, Liles E, Beil TL, Fu R. Screening for colorectal cancer: a targeted, updated systematic review for the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Ann Intern Med* 2008;149:638-658
 7. Atkins D, Best D, Briss PA, Eccles M, Falck-Ytter Y, Flottorp S, et al. Grading quality of evidence and strength of recommendations. *BMJ* 2004;328:1490
 8. Guyatt GH, Oxman AD, Vist GE, Kunz R, Falck-Ytter Y, Alonso-Coello P, et al. GRADE: an emerging consensus on rating quality of evidence and strength of recommendations. *BMJ* 2008;336:924-926
 9. Sung JJ, Lau JY, Goh KL, Leung WK; Asia Pacific Working Group on Colorectal Cancer. Increasing incidence of colorectal cancer in Asia: implications for screening. *Lancet Oncol* 2005;6:871-876
 10. Shin HR, Won YJ, Jung KW, Kong HJ, Yim SH, Lee JK, et al. Nationwide cancer incidence in Korea, 1999~2001; first result using the national cancer incidence database. *Cancer Res Treat* 2005;37:325-331
 11. Jung KW, Won YJ, Park S, Kong HJ, Sung J, Shin HR, et al. Cancer statistics in Korea: incidence, mortality and survival in 2005. *J Korean Med Sci* 2009;24:995-1003
 12. Jung KW, Park S, Kong HJ, Won YJ, Boo YK, Shin HR, et al. Cancer statistics in Korea: incidence, mortality and survival in 2006-2007. *J Korean Med Sci* 2010;25:1113-1121
 13. Choe JW, Chang HS, Yang SK, Myung SJ, Byeon JS, Lee D, et al. Screening colonoscopy in asymptomatic average-risk Koreans: analysis in relation to age and sex. *J Gastroenterol Hepatol* 2007;22:1003-1008
 14. Park HW, Byeon JS, Yang SK, Kim HS, Kim WH, Kim TI, et al. Colorectal Neoplasm in Asymptomatic Average-risk Koreans: The KASID Prospective Multicenter Colonoscopy Survey. *Gut Liver* 2009;3:35-40
 15. Lieberman DA, Weiss DG, Bond JH, Ahnen DJ, Garewal H, Chejfec G. Use of colonoscopy to screen asymptomatic adults for colorectal cancer. Veterans Affairs Cooperative Study Group 380. *N Engl J Med* 2000;343:162-168
 16. Betés M, Muñoz-Navas MA, Duque JM, Angós R, Macías E, Súbtil JC, et al. Use of colonoscopy as a primary screening test for colorectal cancer in average risk people. *Am J Gastroenterol* 2003;98:2648-2654
 17. Regula J, Rupinski M, Kraszewska E, Polkowski M, Pachlewski J, Orłowska J, et al. Colonoscopy in colorectal-cancer screening for detection of advanced neoplasia. *N Engl J Med* 2006;355:1863-1872
 18. Allison JE, Sakoda LC, Levin TR, Tucker JP, Tekawa IS, Cuff T, et al. Screening for colorectal neoplasms with new fecal occult blood tests: update on performance characteristics. *J Natl Cancer Inst* 2007;99:1462-1470
 19. Lieberman DA, Weiss DG; Veterans Affairs Cooperative Study Group 380. One-time screening for colorectal cancer with combined fecal occult-blood testing and examination of the distal colon. *N Engl J Med* 2001;345:555-560
 20. Imperiale TF, Ransohoff DF, Itzkowitz SH, Turnbull BA, Ross ME; Colorectal Cancer Study Group. Fecal DNA versus fecal occult blood for colorectal-cancer screening in an average-risk population. *N Engl J Med* 2004;351:2704-2714
 21. Allison JE, Tekawa IS, Ransom LJ, Adrain AL. A comparison of fecal occult-blood tests for colorectal-cancer screening. *N Engl J Med* 1996;334:155-159
 22. Smith A, Young GP, Cole SR, Bampton P. Comparison of a brush-sampling fecal immunochemical test for hemoglobin with a sensitive guaiac-based fecal occult blood test in detection of colorectal neoplasia. *Cancer* 2006;107:2152-2159
 23. Morikawa T, Kato J, Yamaji Y, Wada R, Mitsushima T, Shiratori Y. A comparison of the immunochemical fecal occult blood test and total colonoscopy in the asymptomatic population. *Gastroenterology* 2005;129:422-428
 24. Park DI, Ryu S, Kim YH, Lee SH, Lee CK, Eun CS, et al. Comparison of guaiac-based and quantitative immunochemical fecal occult blood testing in a population at average risk undergoing colorectal cancer screening. *Am J Gastroenterol* 2010;105:2017-2025
 25. Rozen P, Levi Z, Hazazi R, Waked A, Vilkin A, Maoz E, et al. Quantitative colonoscopic evaluation of relative efficien-

- cies of an immunochemical faecal occult blood test and a sensitive guaiac test for detecting significant colorectal neoplasms. *Aliment Pharmacol Ther* 2009;29:450-457
26. Rozen P, Comaneshter D, Levi Z, Hazazi R, Vilkin A, Maoz E, et al. Cumulative evaluation of a quantitative immunochemical fecal occult blood test to determine its optimal clinical use. *Cancer* 2010;116:2115-2125
 27. Grazzini G, Visioli CB, Zorzi M, Ciatto S, Banovich F, Bonanomi AG, et al. Immunochemical faecal occult blood test: number of samples and positivity cutoff. What is the best strategy for colorectal cancer screening? *Br J Cancer* 2009;100:259-265
 28. Hardcastle JD, Chamberlain JO, Robinson MH, Moss SM, Amar SS, Balfour TW, et al. Randomised controlled trial of faecal-occult-blood screening for colorectal cancer. *Lancet* 1996;348:1472-1477
 29. Kronborg O, Fenger C, Olsen J, Jørgensen OD, Søndergaard O. Randomised study of screening for colorectal cancer with faecal-occult-blood test. *Lancet* 1996;348:1467-1471
 30. Mandel JS, Church TR, Ederer F, Bond JH. Colorectal cancer mortality: effectiveness of biennial screening for fecal occult blood. *J Natl Cancer Inst* 1999;91:434-437
 31. Mandel JS, Church TR, Bond JH, Ederer F, Geisser MS, Mongin SJ, et al. The effect of fecal occult-blood screening on the incidence of colorectal cancer. *N Engl J Med* 2000;343:1603-1607
 32. Lee KJ, Inoue M, Otani T, Iwasaki M, Sasazuki S, Tsugane S; Japan Public Health Center-based Prospective Study. Colorectal cancer screening using fecal occult blood test and subsequent risk of colorectal cancer: a prospective cohort study in Japan. *Cancer Detect Prev* 2007;31:3-11
 33. Wong BC, Wong WM, Cheung KL, Tong TS, Rozen P, Young GP, et al. A sensitive guaiac faecal occult blood test is less useful than an immunochemical test for colorectal cancer screening in a Chinese population. *Aliment Pharmacol Ther* 2003;18:941-946
 34. Sung JJ, Lau JY, Young GP, Sano Y, Chiu HM, Byeon JS, et al. Asia Pacific consensus recommendations for colorectal cancer screening. *Gut* 2008;57:1166-1176
 35. Lieberman DA. Clinical practice. Screening for colorectal cancer. *N Engl J Med* 2009;361:1179-1187
 36. Zhu MM, Xu XT, Nie F, Tong JL, Xiao SD, Ran ZH. Comparison of immunochemical and guaiac-based fecal occult blood test in screening and surveillance for advanced colorectal neoplasms: a meta-analysis. *J Dig Dis* 2010;11:148-160
 37. Pickhardt PJ, Choi JR, Hwang I, Butler JA, Puckett ML, Hildebrandt HA, et al. Computed tomographic virtual colonoscopy to screen for colorectal neoplasia in asymptomatic adults. *N Engl J Med* 2003;349:2191-2200
 38. Mulhall BP, Veerappan GR, Jackson JL. Meta-analysis: computed tomographic colonography. *Ann Intern Med* 2005;142:635-650
 39. Chaparro M, Gisbert JP, Del Campo L, Cantero J, Maté J. Accuracy of computed tomographic colonography for the detection of polyps and colorectal tumor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Digestion* 2009;80:1-17
 40. Johnson CD, Chen MH, Toledano AY, Heiken JP, Dachman A, Kuo MD, et al. Accuracy of CT colonography for detection of large adenomas and cancers. *N Engl J Med* 2008;359:1207-1217
 41. Macari M, Milano A, Lavelle M, Berman P, Megibow AJ. Comparison of time-efficient CT colonography with two- and three-dimensional colonic evaluation for detecting colorectal polyps. *AJR Am J Roentgenol* 2000;174:1543-1549
 42. Macari M, Bini EJ, Jacobs SL, Naik S, Lui YW, Milano A, et al. Colorectal polyps and cancers in asymptomatic average-risk patients: evaluation with CT colonography. *Radiology* 2004;230:629-636
 43. Kim YS, Kim N, Kim SH, Park MJ, Lim SH, Yim JY, et al. The efficacy of intravenous contrast-enhanced 16-row multi-detector CT colonography for detecting patients with colorectal polyps in an asymptomatic population in Korea. *J Clin Gastroenterol* 2008;42:791-798
 44. Kim DH, Pickhardt PJ, Taylor AJ, Leung WK, Winter TC, Hinshaw JL, et al. CT colonography versus colonoscopy for the detection of advanced neoplasia. *N Engl J Med* 2007;357:1403-1412
 45. Johnson CD, Fletcher JG, MacCarty RL, Mandrekar JN, Harmsen WS, Limburg PJ, et al. Effect of slice thickness and primary 2D versus 3D virtual dissection on colorectal lesion detection at CT colonography in 452 asymptomatic adults. *AJR Am J Roentgenol* 2007;189:672-680

46. An S, Lee KH, Kim YH, Park SH, Kim HY, Kim SH, et al. Screening CT colonography in an asymptomatic average-risk Asian population: a 2-year experience in a single institution. *AJR Am J Roentgenol* 2008;191:W100-W106
47. Graser A, Stieber P, Nagel D, Schäfer C, Horst D, Becker CR, et al. Comparison of CT colonography, colonoscopy, sigmoidoscopy and faecal occult blood tests for the detection of advanced adenoma in an average risk population. *Gut* 2009;58:241-248
48. Cotton PB, Durkalski VL, Pineau BC, Palesch YY, Mauldin PD, Hoffman B, et al. Computed tomographic colonography (virtual colonoscopy): a multicenter comparison with standard colonoscopy for detection of colorectal neoplasia. *JAMA* 2004;291:1713-1719
49. Rockey DC, Paulson E, Niedzwiecki D, Davis W, Bosworth HB, Sanders L, et al. Analysis of air contrast barium enema, computed tomographic colonography, and colonoscopy: prospective comparison. *Lancet* 2005;365:305-311
50. McFarland EG, Fletcher JG, Pickhardt P, Dachman A, Yee J, McCollough CH, et al. ACR Colon Cancer Committee white paper: status of CT colonography 2009. *J Am Coll Radiol* 2009;6:756-772.e4
51. Benson M, Dureja P, Gopal D, Reichelderfer M, Pfau PR. A comparison of optical colonoscopy and CT colonography screening strategies in the detection and recovery of sub-centimeter adenomas. *Am J Gastroenterol* 2010;105:2578-2585
52. Edwards JT, Mendelson RM, Fritschi L, Foster NM, Wood C, Murray D, et al. Colorectal neoplasia screening with CT colonography in average-risk asymptomatic subjects: community-based study. *Radiology* 2004;230:459-464
53. Pickhardt PJ. Incidence of colonic perforation at CT colonography: review of existing data and implications for screening of asymptomatic adults. *Radiology* 2006;239:313-316
54. Sosna J, Blachar A, Amitai M, Barmeir E, Peled N, Goldberg SN, et al. Colonic perforation at CT colonography: assessment of risk in a multicenter large cohort. *Radiology* 2006;239:457-463
55. Shinnars TJ, Pickhardt PJ, Taylor AJ, Jones DA, Olsen CH. Patient-controlled room air insufflation versus automated carbon dioxide delivery for CT colonography. *AJR Am J Roentgenol* 2006;186:1491-1496
56. Kimberly JR, Phillips KC, Santago P, Perumpillichira J, Bechtold R, Pineau B, et al. Extracolonic findings at virtual colonoscopy: an important consideration in asymptomatic colorectal cancer screening. *J Gen Intern Med* 2009;24:69-73
57. Pickhardt PJ, Hanson ME, Vanness DJ, Lo JY, Kim DH, Taylor AJ, et al. Unsuspected extracolonic findings at screening CT colonography: clinical and economic impact. *Radiology* 2008;249:151-159
58. Gluecker TM, Johnson CD, Wilson LA, Maccarty RL, Welch TJ, Vanness DJ, et al. Extracolonic findings at CT colonography: evaluation of prevalence and cost in a screening population. *Gastroenterology* 2003;124:911-916
59. Hara AK, Johnson CD, MacCarty RL, Welch TJ. Incidental extracolonic findings at CT colonography. *Radiology* 2000;215:353-357
60. Ginnerup Pedersen B, Rosenkilde M, Christiansen TE, Laurberg S. Extracolonic findings at computed tomography colonography are a challenge. *Gut* 2003;52:1744-1747
61. Chin M, Mendelson R, Edwards J, Foster N, Forbes G. Computed tomographic colonography: prevalence, nature, and clinical significance of extracolonic findings in a community screening program. *Am J Gastroenterol* 2005;100:2771-2776
62. Flicker MS, Tsoukas AT, Hazra A, Dachman AH. Economic impact of extracolonic findings at computed tomographic colonography. *J Comput Assist Tomogr* 2008;32:497-503
63. Veerappan GR, Ally MR, Choi JH, Pak JS, Maydonovitch C, Wong RK. Extracolonic findings on CT colonography increases yield of colorectal cancer screening. *AJR Am J Roentgenol* 2010;195:677-686
64. Radiation Risk in Perspective. *Position Statement of the Health Physics Society*. McLean, VA: Health Physics Society, 2004
65. Brenner DJ, Georgsson MA. Mass screening with CT colonography: should the radiation exposure be of concern? *Gastroenterology* 2005;129:328-337
66. Macari M, Bini EJ, Xue X, Milano A, Katz SS, Resnick D, et al. Colorectal neoplasms: prospective comparison of thin-section low-dose multi-detector row CT colonography and conventional colonoscopy for detection. *Radiology* 2002;

- 224:383-392
67. Zalis ME, Barish MA, Choi JR, Dachman AH, Fenlon HM, Ferrucci JT, et al. CT colonography reporting and data system: a consensus proposal. *Radiology* 2005;236:3-9
 68. Pickhardt PJ, Kim DH. Colorectal cancer screening with CT colonography: key concepts regarding polyp prevalence, size, histology, morphology, and natural history. *AJR Am J Roentgenol* 2009;193:40-46
 69. Welin S, Youker J, Spratt JS Jr. The rates and patterns of growth of 375 tumors of the large intestine and rectum observed serially by double contrast enema study (malmoe technique). *Am J Roentgenol Radium Ther Nucl Med* 1963;90:673-687
 70. Hofstad B, Vatn MH, Andersen SN, Huitfeldt HS, Rognum T, Larsen S, et al. Growth of colorectal polyps: redetection and evaluation of unresected polyps for a period of three years. *Gut* 1996;39:449-456
 71. Knoernschild HE. Growth rate and malignant potential of colonic polyps: early results. *Surg Forum* 1963;14:137-138
 72. Stryker SJ, Wolff BG, Culp CE, Libbe SD, Ilstrup DM, McCarty RL. Natural history of untreated colonic polyps. *Gastroenterology* 1987;93:1009-1013
 73. Smith RA, Cokkinides V, Eyre HJ; American Cancer Society. American Cancer Society guidelines for the early detection of cancer, 2003. *CA Cancer J Clin* 2003;53:27-43
 74. Rex DK, Lieberman D; ACG. ACG colorectal cancer prevention action plan: update on CT-colonography. *Am J Gastroenterol* 2006;101:1410-1413
 75. Rockey DC, Barish M, Brill JV, Cash BD, Fletcher JG, Sharma P, et al. Standards for gastroenterologists for performing and interpreting diagnostic computed tomographic colonography. *Gastroenterology* 2007;133:1005-1024
 76. Lieberman D, Moravec M, Holub J, Michaels L, Eisen G. Polyp size and advanced histology in patients undergoing colonoscopy screening: implications for CT colonography. *Gastroenterology* 2008;135:1100-1105
 77. Gillespie JS, Kelly BE. Double contrast barium enema and colorectal carcinoma: sensitivity and potential role in screening. *Ulster Med J* 2001;70:15-18
 78. Thomas RD, Fairhurst JJ, Frost RA. Wessex regional radiology audit: barium enema in colo-rectal carcinoma. *Clin Radiol* 1995;50:647-650
 79. Johnson CD, Carlson HC, Taylor WF, Weiland LP. Barium enemas of carcinoma of the colon: sensitivity of double- and single-contrast studies. *AJR Am J Roentgenol* 1983;140:1143-1149
 80. Kelvin FM, Gardiner R, Vas W, Stevenson GW. Colorectal carcinoma missed on double contrast barium enema study: a problem in perception. *AJR Am J Roentgenol* 1981;137:307-313
 81. Thorpe CD, Grayson DJ Jr, Wingfield PB. Detection of carcinoma of the colon and rectum by air contrast enema. *Surg Gynecol Obstet* 1981;152:307-309
 82. Fork FT, Lindström C, Ekelund G. Double contrast examination in carcinoma of the colon and rectum. A prospective clinical series. *Acta Radiol Diagn (Stockh)* 1983;24:177-188
 83. Reiertsen O, Bakka A, Trønnes S, Gauperaa T. Routine double contrast barium enema and fiberoptic colonoscopy in the diagnosis of colorectal carcinoma. *Acta Chir Scand* 1988;154:53-55
 84. Rex DK, Rahmani EY, Haseman JH, Lemmel GT, Kaster S, Buckley JS. Relative sensitivity of colonoscopy and barium enema for detection of colorectal cancer in clinical practice. *Gastroenterology* 1997;112:17-23
 85. Strøm E, Larsen JL. Colon cancer at barium enema examination and colonoscopy: a study from the county of Hordaland, Norway. *Radiology* 1999;211:211-214
 86. McDonald S, Lyall P, Israel L, Coates R, Frizelle F. Why barium enemas fail to identify colorectal cancers. *ANZ J Surg* 2001;71:631-633
 87. Connolly DJ, Traill ZC, Reid HS, Copley SJ, Nolan DJ. The double contrast barium enema: a retrospective single centre audit of the detection of colorectal carcinomas. *Clin Radiol* 2002;57:29-32
 88. Leslie A, Virjee JP. Detection of colorectal carcinoma on double contrast barium enema when double reporting is routinely performed: an audit of current practice. *Clin Radiol* 2002;57:184-187
 89. Tawn DJ, Squire CJ, Mohammed MA, Adam EJ. National audit of the sensitivity of double-contrast barium enema for colorectal carcinoma, using control charts For the Royal College of Radiologists Clinical Radiology Audit Subcommittee. *Clin Radiol* 2005;60:558-564

90. Toma J, Paszat LF, Gunraj N, Rabeneck L. Rates of new or missed colorectal cancer after barium enema and their risk factors: a population-based study. *Am J Gastroenterol* 2008;103:3142-3148
91. Williams CB, Macrae FA, Bartram CI. A prospective study of diagnostic methods in adenoma follow-up. *Endoscopy* 1982;14:74-78
92. Winawer SJ, Stewart ET, Zauber AG, Bond JH, Ansel H, Waye JD, et al. A comparison of colonoscopy and double-contrast barium enema for surveillance after polypectomy. National Polyp Study Work Group. *N Engl J Med* 2000;342:1766-1772
93. Glick SN. Comparison of colonoscopy and double-contrast barium enema. *N Engl J Med* 2000;343:1728; author reply 1729-1730
94. Kewenter J, Brevinge H. Endoscopic and surgical complications of work-up in screening for colorectal cancer. *Dis Colon Rectum* 1996;39:676-680
95. Blakeborough A, Sheridan MB, Chapman AH. Complications of barium enema examinations: a survey of UK Consultant Radiologists 1992 to 1994. *Clin Radiol* 1997;52:142-148
96. Winawer SJ, Fletcher RH, Miller L, Godlee F, Stolar MH, Mulrow CD, et al. Colorectal cancer screening: clinical guidelines and rationale. *Gastroenterology* 1997;112:594-642
97.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Screening for colorectal cancer: recommendation and rationale. *Ann Intern Med* 2002;137:129-131
98. Levin TR, Zhao W, Conell C, Seeff LC, Manninen DL, Shapiro JA, et al. Complications of colonoscopy in an integrated health care delivery system. *Ann Intern Med* 2006;145:880-886
99. Rex DK, Cutler CS, Lemmel GT, Rahmani EY, Clark DW, Helper DJ, et al. Colonoscopic miss rates of adenomas determined by back-to-back colonoscopies. *Gastroenterology* 1997;112:24-28
100. Pickhardt PJ, Nugent PA, Mysliwiec PA, Choi JR, Schindler WR. Location of adenomas missed by optical colonoscopy. *Ann Intern Med* 2004;141:352-359
101. Bressler B, Paszat LF, Vinden C, Li C, He J, Rabeneck L. Colonoscopic miss rates for right-sided colon cancer: a population-based analysis. *Gastroenterology* 2004;127:452-456
102. Choi KY, Lee BI, Lee SY, Lee WC, Bae SS, Kim BW, et al. Colonoscopic miss-rate of colorectal polyp and adenoma. *Korean J Gastrointest Endosc* 2003;26:199-204
103. Rex DK, Petrini JL, Baron TH, Chak A, Cohen J, Deal SE, et al. Quality indicators for colonoscopy. *Gastrointest Endosc* 2006;63:S16-S28
104. Chung IK. Process assessment for quality control of upper and lower endoscopy. *Korean J Gastrointest Endosc* 2010;41:230-234
105. Barclay RL, Vicari JJ, Doughty AS, Johanson JF, Greenlaw RL. Colonoscopic withdrawal times and adenoma detection during screening colonoscopy. *N Engl J Med* 2006;355:2533-2541
106. Simmons DT, Harewood GC, Baron TH, Petersen BT, Wang KK, Boyd-Enders F, et al. Impact of endoscopist withdrawal speed on polyp yield: implications for optimal colonoscopy withdrawal time. *Aliment Pharmacol Ther* 2006;24:965-971
107. Ahn SB, Han DS, Kim SM, Cho HS, Byun TJ, Kim TY, et al. The colonoscopic withdrawal time is correlated with the rate of detecting polyps when performing colonoscopy. *Korean J Gastrointest Endosc* 2009;38:75-79
108. Kaminski MF, Regula J, Kraszewska E, Polkowski M, Wojciechowska U, Didkowska J, et al. Quality indicators for colonoscopy and the risk of interval cancer. *N Engl J Med* 2010;362:1795-1803
109. Rabeneck L, Paszat LF, Saskin R, Stukel TA. Association between colonoscopy rates and colorectal cancer mortality. *Am J Gastroenterol* 2010;105:1627-1632
110. Kahi CJ, Imperiale TF, Juliar BE, Rex DK. Effect of screening colonoscopy on colorectal cancer incidence and mortality. *Clin Gastroenterol Hepatol* 2009;7:770-775; quiz 711
111. Arain MA, Sawhney M, Sheikh S, Anway R, Thyagarajan B, Bond JH, et al. CIMP status of interval colon cancers: another piece to the puzzle. *Am J Gastroenterol* 2010;105:1189-1195
112. Bianco MA, Cipolletta L, Rotondano G, Buffoli F, Gizzi G, Tessari F; Flat Lesions Italian Network (FLIN). Prevalence of nonpolypoid colorectal neoplasia: an Italian multicenter observational study. *Endoscopy* 2010;42:279-285
113. Newcomb PA, Storer BE, Morimoto LM, Templeton A, Potter JD. Long-term efficacy of sigmoidoscopy in the

- reduction of colorectal cancer incidence. *J Natl Cancer Inst* 2003;95:622-625
114. Selby JV, Friedman GD, Quesenberry CP Jr, Weiss NS. A case-control study of screening sigmoidoscopy and mortality from colorectal cancer. *N Engl J Med* 1992;326:653-657
 115. Brenner H, Haug U, Arndt V, Stegmaier C, Altenhofen L, Hoffmeister M. Low risk of colorectal cancer and advanced adenomas more than 10 years after negative colonoscopy. *Gastroenterology* 2010;138:870-876
 116. Imperiale TF, Glowinski EA, Lin-Cooper C, Larkin GN, Rogge JD, Ransohoff DF. Five-year risk of colorectal neoplasia after negative screening colonoscopy. *N Engl J Med* 2008;359:1218-1224
 117. Lakoff J, Paszat LF, Saskin R, Rabeneck L. Risk of developing proximal versus distal colorectal cancer after a negative colonoscopy: a population-based study. *Clin Gastroenterol Hepatol* 2008;6:1117-1121; quiz 1064
 118. Leung WK, Lau JY, Suen BY, Wong GL, Chow DK, Lai LH, et al. Repeat-screening colonoscopy 5 years after normal baseline-screening colonoscopy in average-risk Chinese: a prospective study. *Am J Gastroenterol* 2009;104:2028-2034
 119. Singh H, Turner D, Xue L, Targownik LE, Bernstein CN. Risk of developing colorectal cancer following a negative colonoscopy examination: evidence for a 10-year interval between colonoscopies. *JAMA* 2006;295:2366-2373
 120. Rex DK, Cummings OW, Helper DJ, Nowak TV, McGill JM, Chiao GZ, et al. 5-year incidence of adenomas after negative colonoscopy in asymptomatic average-risk persons [see comment]. *Gastroenterology* 1996;111:1178-1181
 121. Singh H, Nugent Z, Mahmud SM, Demers AA, Bernstein CN. Predictors of colorectal cancer after negative colonoscopy: a population-based study. *Am J Gastroenterol* 2010;105:663-673; quiz 674
 122. Baxter NN, Sutradhar R, Forbes SS, Paszat LF, Saskin R, Rabeneck L. Analysis of administrative data finds endoscopist quality measures associated with postcolonoscopy colorectal cancer. *Gastroenterology* 2011;140:65-72
 123. Ben-Horin S, Bar-Meir S, Avidan B. The impact of colon cleanliness assessment on endoscopists' recommendations for follow-up colonoscopy. *Am J Gastroenterol* 2007;102:2680-2685
 124. Lebowitz B, Kastrinos F, Glick M, Rosenbaum AJ, Wang T, Neugut AI. The impact of suboptimal bowel preparation on adenoma miss rates an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early repeat colonoscopy. *Gastrointest Endosc* 2011;73:1207-1214
 125. Levin B, Lieberman DA, McFarland B, Andrews KS, Brooks D, Bond J, et al. Screening and surveillance for the early detection of colorectal cancer and adenomatous polyps, 2008: a joint guideline from the American Cancer Society, the US Multi-Society Task Force on Colorectal Cancer, and the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Gastroenterology* 2008;134:1570-1595
 126. Atkin WS, Edwards R, Kralj-Hans I, Wooldrage K, Hart AR, Northover JM, et al. Once-only flexible sigmoidoscopy screening in prevention of colorectal cancer: a multicentre randomised controlled trial. *Lancet* 2010;375:1624-1633
 127. Hoff G, Grotmol T, Skovlund E, Bretthauer M; Norwegian Colorectal Cancer Prevention Study Group. Risk of colorectal cancer seven years after flexible sigmoidoscopy screening: randomised controlled trial. *BMJ* 2009;338:b1846
 128. Bini EJ, Unger JS, Rieber JM, Rosenberg J, Trujillo K, Weinschel EH. Prospective, randomized, single-blind comparison of two preparations for screening flexible sigmoidoscopy. *Gastrointest Endosc* 2000;52:218-222
 129. Sharma VK, Chockalingham S, Clark V, Kapur A, Steinberg EN, Heinzlmann EJ, et al. Randomized, controlled comparison of two forms of preparation for screening flexible sigmoidoscopy. *Am J Gastroenterol* 1997;92:809-811
 130. Underwood D, Makar RR, Gidwani AL, Najfi SM, Neilly P, Gilliland R. A prospective randomized single blind trial of Fleet phosphate enema versus glycerin suppositories as preparation for flexible sigmoidoscopy. *Ir J Med Sci* 2010;179:113-118
 131. Atkin WS, Hart A, Edwards R, Cook CF, Wardle J, McIntyre P, et al. Single blind, randomised trial of efficacy and acceptability of oral picolax versus self administered phosphate enema in bowel preparation for flexible sigmoidoscopy screening. *BMJ* 2000;320:1504-1508; discussion 1509
 132. Osgard E, Jackson JL, Strong J. A randomized trial comparing three methods of bowel preparation for flexible

sigmoidoscopy. *Am J Gastroenterol* 1998;93:1126-1130

133. Levin TR, Farraye FA, Schoen RE, Hoff G, Atkin W, Bond JH, et al. Quality in the technical performance of screening flexible sigmoidoscopy: recommendations of an international multi-society task group. *Gut* 2005;54:807-813

134. Lewis JD, Ng K, Hung KE, Bilker WB, Berlin JA, Brensinger C, et al. Detection of proximal adenomatous polyps with screening sigmoidoscop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screening colonoscopy. *Arch Intern Med* 2003; 163:413-420

135. Schoen RE, Weissfeld JL, Pinsky PF, Riley T. Yield of advanced adenoma and cancer based on polyp size detected at screening flexible sigmoidoscopy. *Gastroenterology* 2006;131:1683-1689

136. Doria-Rose VP, Levin TR, Selby JV, Newcomb PA, Richert-Boe KE, Weiss NS. The incidence of colorectal cancer following a negative screening sigmoidoscopy: implications for screening interval. *Gastroenterology* 2004;127:714-722

137. Burke CA, Elder K, Lopez R. Screening for colorectal cancer with flexible sigmoidoscopy: is a 5-yr interval appropriate? A comparison of the detection of neoplasia 3 yr versus 5 yr after a normal examination. *Am J Gastroenterol* 2006;101:1329-1332

138. Rex DK, Johnson DA, Anderson JC, Schoenfeld PS, Burke CA, Inadomi JM; American College of Gastroenterology. American College of Gastroenterology guidelines for colorectal cancer screening 2009 [corrected]. *Am J Gastroenterol* 2009;104:739-750

139. Baxter NN, Goldwasser MA, Paszat LF, Saskin R, Urbach DR, Rabeneck L. Association of colonoscopy and death from colorectal cancer. *Ann Intern Med* 2009;150:1-8

140. Brenner H, Hoffmeister M, Arndt V, Stegmaier C, Altenhofen L, Haug U. Protection from right- and left-sided colorectal neoplasms after colonoscopy: population-based study. *J Natl Cancer Inst* 2010;102:89-95

대장암 선별과 대장폴립 진단검사 가이드라인

이보인¹ · 홍성필² · 김성은³ · 김세형⁴ · 김현수⁵ · 홍성노⁶ · 양동훈⁷ · 신성재⁸ · 이석호⁹ · 김영호¹⁰ · 박동일¹⁰ · 김현정¹¹ · 양석균⁷ · 김효종¹² · 전해정¹³ · 다학회 기반 대장폴립 진료 가이드라인 개발 실무위원회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은 남성에서 두 번째, 여성에서 네 번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암이며, 대장폴립의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대장암 선별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대장암은 전암병변인 샘종에서 암종으로의 암화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장샘종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를 제거하는 것은 대장암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에 따라 대장암의 선별 및 대장폴립 진단을 위한 국내의 진료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다학회 기반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 개발 실무위원회에서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토대로 국내 진료환경에 적합한 근거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최근의 국내 대장암 및 대장샘종의 역학과 대장암 선별과 대장폴립 진단을 위한 대변잠혈반응검사, 영상의학 검사, 내시경검사의 효용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¹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²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³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내과학교실, ⁴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의학교실, ⁵연세대학교 원주의료대학 내과학교실, ⁶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내과학교실, ⁷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학교실, ⁸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⁹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¹⁰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¹¹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학교실, ¹²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¹³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영상의학과의학교실